광주국세청, 잘못 낸 세금 24억원

설 전까지 돌려 준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설 이전까지 광주·전남 6천136명에게 잘못 납부된 세금 23억 9천200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가계 등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잠자는 소득세' 환급 이후 납세자 착오로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온 광주지방국세청은 공제 대상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2천54명에 3억2천900만원, 소득세는 3천754명에 16억4천만원, 법인세는 328개 업체에 4억2천300만원이다.

이번 환급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좌 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107개 세원정보팀을 동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도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 제네시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급 세단인 제네시스가 11일(미국 시간) 북미시장에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매년 최고의 모델을 뽑는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본부 이현순 부회장과 현대차미국법인(HMA) 존 크라프칙 사장 대행이 이날 오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발표된 이 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지역 건설업체 입찰공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역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제한 제도의 대상 금액을 이달 중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역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이거나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건설 공사의 경우 국가기관 주관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은 기존 5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공공기관은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높아진다.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공공기관은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도 이달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제도의 대상 금액을 7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 올 성장률 마이너스"

국내외 전문가 분석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다.

두 달 만에 3%에서 0%대로 낮춘 것으로, 이런 하향 속도라면 조만간 연간 '마이너스' 전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작년 말의 전망치보다 크게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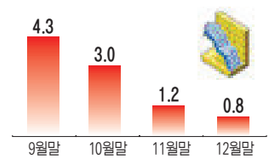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씨티은행 등 9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작년 12월 말에 예측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로 집계됐다.

이미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춘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1.8%, 금융연구원은 1.7%를 예측했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 IB 올해 韓 성장률 전망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전년 동기대비, %)



예측시점	작년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골드만삭스	4.6	3.9	3.1	1.8
JP모건	4.7	3.0	1.5	1.5
모건스탠리	5.0	3.8	2.7	2.7
UBS	3.5	1.1	-3.0	-3.0
스탠다드차타드	5.0	3.9	1.4	1.4
메릴린치	3.8	1.5	1.5	-0.2
도이치뱅크	-	-	-	0.2
씨티은행	3.4	2.2	-	2.0
BNP파리바	4.7	4.7	-	-
바클레이즈	4.3	-	1.0	1.0
크레디트스위스	4.3	-	-	-

주가 24.21P↓ 환율 16.00원↑

기업들 실적 악화 우려 … 금융시장 또 흔들

기업들의 실적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21포인트(2.05%) 내린 1,156.75로 마감하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13포인트(1.99%) 내린 351.3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10.27포인트(0.87%) 하락한 1,170.69로 출발해 기관에 이어 외국인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낙폭이 확대돼 1,15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기관은 1천22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장 초반 3거래일만에 순매수세를 나타냈으나 결국 매도세로 전환해 1천46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통신(0.56%)과 전기가스(0.54%)만 올랐고, 철강금속(-3.17%), 기계(-3.93%), 전기전자(-1.12%), 운수장비(-4.48%), 건설(-5.84%), 은행(-2.17%), 증권(-2.91%) 등 대부분 업종이 내렸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6.00원 오른 1,3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간 66.50원 상승하며 지난달 15일 1,367.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악화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당기순익 120억 부풀렸다"

감사원, 감사 지적

감사원은 12일 광주은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위험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쌓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120억6천600만원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은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광주은행은 또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축소되자 2005~2008년 연차휴가 보전금 33억1천2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2007~2008년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억9천200만원의 유류비를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은행측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지적이후 대출상각과 자진상환 등의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대부분을 2008년 결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채 올 86조 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74조3천억원~86조3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 상환 한도는 44조5천억 원이며 순증 한도는 29조8천억 원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 차원에서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보전용 국채 19조7천억 원 어치는 상반기에 모두 발행한다. /연합뉴스